

소재·부품 산학연협력 체계 강화 간담회 개최 계획

□ 간담회 주제

주 제 **소재·부품 산학연협력 체계강화 및 지원 효율화 방안**

주요내용

- ① 기존 소재·부품 연구개발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- ②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재·부품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
- ③ 소재·부품 개발 선진화를 위한 대학·연구기관과 협회의 역할

□ **개최일시(장소) : 19.08.29(목) 15:00~17:00 (한국산학연협회 7층 회의실)**

□ **참가자 : 소재·부품 분야 협력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대학·연구기관 전문가**

□ 운영방식

- 협회의 소재·부품 개발기업 지원 기획안*을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소재·부품 고도화 방안 토론
- 실질적인 소재·부품 산학연협력 사업추진 방안 도출을 위해 사전에 소재·부품 국산화 우수협력 사례를 조사 요청

① 사례공유	② 지원방안	③ 신규사업
소재·부품 연구개발 관련 우수협력 사례 공유	▶ 소재·부품 선진화를 위한 대학·연구기관의 역할 논의	▶ 소재·부품 선지화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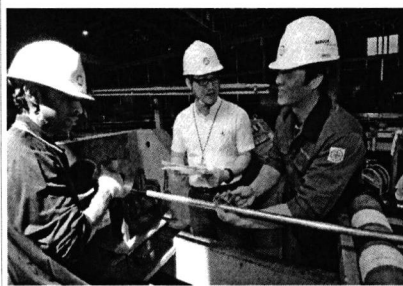
* 산학연협력을 통한 소재·부품 플랫폼기업 육성방안, 소재·부품 첨단 연구장비 Inner-네트워크 구축 등

- 간담회 결과를 기존 기획안에 반영하고 향후 중기부, 기정원 등과 협의하여 소재·부품 선진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 추진

참고1 협력을 통한 소재·부품 국산화 사례 (예시)

□ (주)부곡스텐레스 (금속소재 분야)

- 산학협력기술개발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내 소재로 '잔류응력'을 최소화할 수 있는 '스테인리스 육각바' 개발 ('15년)
- 본 기술 개발 전까지 국내 소재를 활용한 스테인리스 육각바는 일본 소재에 비해 응력부식이 빨라 경쟁력이 미흡하였으나,
 - 공정과 기술의 조합을 통해 일본 제품과 비교해 강도는 높고 응력부식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소재를 개발



- 문화일보('15.6.30), 아시아경제('15.07.01)
"스테인리스 육각바' 개발 '브레인역' 톡톡... 특허 출원...
중소에 소유권 이전 '상생 협력'"
- 본 연구개발의 성공에 따라 기존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스테인리스강의 수입 대체 및 역수출 계기 마련

참고2 지역별 소재·부품 고도화 방안(예시)

□ 차별화 방안

- 슈퍼컴퓨터, 병렬컴퓨터 등 고도의 성능을 가진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재선택, 설계, 공정,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원
 - 연구개발 수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전적이고 실행 가능한 품질목표 수립 지원 및 성공률 강화

□ 시장성 확보방안

-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소재·부품 개발기업과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공동 과제기획 추진